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위한 만찬사

존경하는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각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대통령 각하와 일행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번째 우리나라를 찾아 주신 각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하께서는 1990년대 초 소련이 해체되는 혼돈과 격변의 와중에서 '독립국가 연합'을 출범시키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하셨습니다. '아시아교류신뢰구축회의'의 출범을 주도하여 역내 국가간의 신뢰구축과 안보협력에 크게 기여하고 계십니다. 국내적으로도 적극적인 개혁을 통해 지난 3년 동안 10%에 이르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셨습니다.

이처럼 중앙아시아의 평화와 카자흐스탄의 발전을 위한 각하의 탁월한 지도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대통령 각하,

나는 오늘 각하와의 정상회담 결과에 매우 만족합니다. 북핵 문제 해결과 유엔

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더욱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양국간의 교역 확대와 자원협력을 비롯한 상호 관심사에 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형사사법 공조조약'과 '범죄인 인도조약'도 체결하여 양국관계 증진을 위한 법적 토대를 한층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한 공동성명은 양국의 미래를 열어 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사업들을 하나하나 실천하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카자흐스탄은 광대한 국토를 가진 나라입니다. 자원도 풍부합니다. 최근에는 원유생산량이 매년 15%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지하수와 오아시스 개발로 사막을 곡창지대로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카자흐스탄의 무한한 잠재력을 키우는 데 우리의 자본과 기술, 개발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카스피해 유전개발사업이 양국의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이미 카자흐스탄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투자한 제스카스칸 구리광산은 모두 6만명을 고용하는 대규모 사업체로 성장했습니다. 연간 40만톤의 구리제품을 생산하여 8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성공사례가 나오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대통령 각하,

카자흐스탄에는 10만여명의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술한 역경을 이겨내고 지금의 삶의 터전을 일구었습니다. '네가 태어난 곳에서 네 깃발을 올려라'는 카자흐스탄의 격언을 믿으며 살아온 분들입니다.

이제는 우리 두 나라의 문화적 유대와 친밀감을 더해 주는 가교가 되었습니다. 우리 동포들의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어 주신 카자흐스탄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각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건강과, 카자흐스탄의 무궁한 번영, 그리고 우리 두 나라간의 협력을 위하여 건배를 제의합니다.

감사합니다.